

사회

순천 명신대학 비리 백태보니

교육과학기술부가 적발한 명신대의 경영 비리와 부실한 학사운영은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포함한 부실대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종합감사 이후에 학교 측의 이의신청 기간(8월11일)이 남아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등록금 인하와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번 감사결과가 부실 대학 정리를 위한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일고 있다.

설립자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명신대는 대학 설립인가부터 신·편입생 모집, 학점 장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설립부터 비리=1999년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재단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건물·주식·채권·예금 등)에 관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신설 대학은 14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교육에 쓰이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별도로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설립자 이씨는 결국 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목표에서 교교를 운영하던 이씨는 고교 재산을 대학 재산으로 서류에 기재하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

설립인가 받자마자 14억 빼돌리고 출석 미달 학생 2만명 '엔터리학점' 가족들 요직 독점... 교비 멋대로 써

을 썼다.

이씨는 인가 이듬해인 2000년 대학 재산에서 예금 14억9000만원을 이사회 의결과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빼 썼다. 이 사실을 숨기 위해 교비 12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14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빈 계좌를 채워 넣었다.

학사관리 엔터리=신·편입생 선발과 학사 관리도 부실 투성이었다. 명신대는 2008~2010학년도 사회복지학과 입학정원을 116명 초과 선발한 뒤, 편입생이 학과를 옮기는 것처럼 전과(轉科) 처리했다. 2008학년도에는 사회복지학과와 편입학 불합격자를 정원미달 학과에 합격시킨 뒤, 전과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입학정원보다 63명을 초과로 뽑았다. 또 2010학년도에 교수 49명이 189개 교과목에서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2만 2794명에게 학점을 줬다. 대상자는 재학생이 연인원 2178명, 시간제등록

생이 2만616명이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 학생의 성적은 모두 취소하라고 명신대에 통보했다. 학점 인정은 대학 학칙으로 결정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재수강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 초과편성, 강의실 수용가능 인원을 넘어선 교과목 수강생 편성 등도 적발됐다. 대학이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자체 조달하지 못해 외부업체에 강의를 맡기고 수업료의 33~80%를 지급한 일까지 있었다.

교비는 싹쓸이=설립자 이모씨는 이미 교비 13억8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가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형량액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이씨는 교직원 5명에게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들이 퇴직할 때 대학 교비회계에서 돈을 빼내 돌려줬다. 또 이씨

는 생계비 등으로 2010년 3월부터 1억2100만원, 그의 부인이자 전 이사장인 박모씨는 형사소송 비용 2000만원을 각각 교비에서 부담하게 지원받았다.

심지어 이씨는 아파트 관리비 400만원과 퇴직 후 차량 유류비 700만원을 지급받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명신대는=순천시 발달장애를 위한 명신대학교(명명학원)는 지난 2000년 개교한 설립자 가족 경영 체제의 대학이다. 교과부 조사 결과 2010년 중도탈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1인당 교육비도 4년제 대학 중 하위 4번째를 기록했지만 학생 1인당 평점 평균은 전국 1위로 나타난 부실대학 중 한 곳이다.

전남지역 물놀이 사고 잇따라

순천 수영 미숙 중학생 숨져

7월 셋째 주 주말과 휴일 전남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17일 낮 12시50분께 순천시 석현동 한 저수지 인근 하천에서 순천 모 중학교 3년 조모(15)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5m 길이의 하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조군이 수영 미숙으로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오전 10시40분께에는 화순군 북면 백아산 휴양림 계곡에서 광주 모 고교 1년 박모(17)군이 물에 빠졌으나 친구들이 구조,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와함께 안도해양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이용해 물놀이하다 조류에 휩쓸려 방파제 밖으로 떠내려가던 문모(13·송지중 1년)군 등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순천시의원 공무원 고발 무혐의... 권한남용 논란

순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시정 잘못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을 수차례 고발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돼 의원 권한남용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집행부가 추진한 문화의 거리 사업과 관련, 지난 4월 이종철 시의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순모 과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부실설계 등을 이유로 순과장 등 2명의 사정 직원과 민간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추가 시공비를 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순과장을 또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순과장과 관련업체를 고발하는가 하면 장애인 등 고

통약자의 보행환경이 위협받았으며 순과장과 사정직원, 사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5건의 고발사건 중 4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인정이 안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나머지 1건도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행부들이 이 의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권한남용' 논란과 함께 '고발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증거불충분 등의 사안은 증거를 보강,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감사 등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무등산 '무돌길' 담양구간 개방했다.

지난 16일 일반에게 개방된 무돌길 담양구간(담양군 남면 독수정~무동리 정자·9km)을 500여명의 등산객들이 걷고 있다. 담양군 남면초등학교에서 열린 개방대회에는 강은태 광주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등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5共대 경호실장>

5·18 단체들 “전두환 최측근... 일해재단 비리까지”

5월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으로 지난달 25일 사망한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사)5·18민주유공자유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인물을 국립묘지에 묻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립묘지는 애국자와 국가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분들 중에서도 범법사실이 없는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안장 된 곳”이라며 “5월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 정권

의 핵심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하나회’ 소속으로 1980년 신군부 세력에 가담해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등 요직을 거쳐 1988년

전두환 퇴임 때까지 최측근으로 활동했다”며 “일해재단 비리 사건에도 연루돼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거둬들인 혐의로 1996년 구속, 물의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역사적 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관계당국에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안씨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으며, 안장심사 결과 1차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뒤 2차 심사가 다시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5월 단체들이 반발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딱 걸렸네’

순찰차서 ‘휴식’... 시민이 신고

목포경찰 2명 징계 위기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휴식을 하다 취객의 신고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0시20분께 목포시 용해동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40여분 동안 휴식을 했다.

이를 본 취객 이모(47)씨는 “경찰관들이 왜 순찰차에서 쉬고 있느냐”며 112에 항의했다. 이후 무전 지령을 받은 경찰관은 순찰

차를 움직이려 했지만 이씨는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경찰관들은 이씨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이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씨 등은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 등을 지적하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경찰은 이들이 순찰차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규정을 어긴 점을 인정, 징계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나 산부인과 의사인데...”

상습 음란전화 징역1년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17일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여성을 상대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전화를 했

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수사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아서 두 차례 음란전화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이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1월18일 새벽 5시께 모 대학병원에 전화해 교환원에게 자신을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방송 출연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성관계나 신체 특징 등 관련 질문을 하는 등 2명에게 음란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나원침 (8359) 김종두



성추행 혐의 조사 50대

농수로서 숨진 채 발견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6일 오전 9시께 화순군 동면 한 저수지 옆 농수로에서 A(59)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인근 남평리에서는 A씨의 차량이 걸려 있었다.

A씨는 전날 오후 화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후 A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못한 아빠를 용서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겨놓고 집을 나가 경찰이 수색에 나선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유서를 남긴 점을 토대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음주사고 후 지인행세 뺑뺑男 실형

음주운전 사고 후 지인행세를 도용했다가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될 처지.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행세를 하며 경찰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최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했다가 기소됐는데, 당시 최씨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전부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recruitment information for public service exams (공무원 시험준비) and various courses. Includes contact info: www.hanbitgosi.co.kr, 062)234-0234.